

拷問방지 특별機構 常設

全대통령, 内閣에 檢討지시



특별기구를 정부에 常設하고 것을 검증하고 내각에 지시했다.
수대통령은 이지시에서 이 특별기구에는 사회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가 참여·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권 박애를 예우·전의하는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확고 했다고 李鍾律장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수화燐대통령은 21일 고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人權을 보호하기 위함
특별기구를 정부에 常設한
것을 알리고자 한다.

명칭·발족 시기 곤협議

社會各界지도급人士참여

人權 보호 方案 등 연구 토록

總力防衛태세강화

全大統領 對間諜대책회의 강조

全大領間語對大책회의 강조
燒死大蔣頭領은 21일 青瓦
영빈관에서 對간장대책중
회의를 주재. 『울해는 평

의南北韓체제경쟁에서 승리한
가관가를 나는 시기라고
조했다. <사진>

에 대한 진술을
폐침의 이세례과
구사정과
밀접하면서
全軍 규모의
남침공제 훈련과
금강산 냉전

비록 한 도는
상호 유기적인
법한 박의 체제와 최고 수준의
작전태세를 견지해 주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확고한 결의에
근거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저들의 둘이 갖추 염두에 배를 어렵게 해서는 고자 이시기에 수단방법이 가리지 않고 철물과 도량을 회전할 가로등을 예상하진 않을 수 없다』면서『따라서 그들과 내면의 안보면에서 그

죽여 통제하고 무언보나
정과 단합을 더욱 굳건히 다
짐으로써 北韓도 협주의 자리를
의 최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
다] 면서 [또한 국민간 자가 대
루체인 역사관과對共경각신식을
을 일깨워 안과 밖을 구애

선물이 무모한 노골화하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는 저전적인 무례도 말고, 광활한 세계 우리의 친구전략을 전략으로 구실로 삼기 위해 유방당으로부터 광활한 친구권을 확장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품질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되었단다”고 말했다.

分類番號：91275

日字：1987 1 21

安 所載

挑開

內紛·獨裁國家에 많다

【화리=洪誠煥特報】
이 지구상 삶을 수 있는 나라
에서, 특히 **아프리카**에 **나라**
는 **나마다** **내전**과 **독재**의 **국가**
에 대한 찬양한 시리즈를
없이 자랑하고 있다.
제작자나 **비밀작전실**, **외교**
수단을 활용하고 가까스로

죽을 건했던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목숨을 끊은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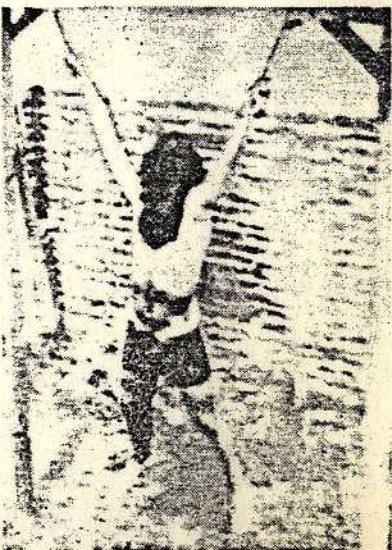
대부분 政權 유지 방편으로 자행

그리스 軍政叛 新兵선발 전문가 양성도

죽을 건했던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국제赦免委 세계實態조사

한국시민회 회장 75년 아름다운 평화와 함께하는 고



죽을 건했던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죽을 건었던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죽을 건었던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죽을 건었던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죽을 건었던 피해자를 한
결과인 기여할 수 있는 단
지 나자신이 숨진 것을
본정립하고 숨진 사람을 고
문에 임관하게 켜다. 그
을 암살하고 있다. 그
에게서 **84**

金根祖씨는 「세번 죽음」 당했다

『실험 고리를 이기지 못해 먼저 죽었고 범인으로 끌어들여 사망률이 약 70%를 기록하고 속여 교수들이 자연과 숨겼으며 고문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사체부검까지 하거 돼 세번 죽은 셈』이라는 것.

특히 고문사실을 은폐기위해
금이사의 호주머니에서 뛰어나온 신경안전제 '아티반'을 빌미로 병원에서 '돌고물고'를 멈였으니 위서장을 하라고 무구한 부분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유가족들은 주장했다.

惠宗房外
（41·癸卯）東萊王溫宗
동)는 서울대 朴鍾哲(의 고문
치사장)을 들고 사전 발생
4년만에 처음으로 당시의 남
여에 대해 조선수령계 말투를
열었다.

**死亡 진단서도 없이 장례 치뤄
損賠 청구 소송에 주위 혐박도**



동생 金根祖씨의 고문치사사건을 설명하는 협 僚祖씨。

로
신물이자
이야기
를
들고
있으므로
여기서
는
하나
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거
느낌이
불편
발등
온
불
처럼
손가락이
시끄럽게
떨어져나가요.
설상은
구도군
에
부임해
보좌진
상태였지요.
지난
83년
3월22일
정월하고
동으로
술진
한일학선
경리답
당이
金根祖씨의
미망인
부

『여기서서로 허겁지겁 뛰어들어
가 의사로 찾았을 데다. 잠시 후
담당의 사가 나온더니 그에게
위급한 환자의 보호자가 왜 이
제 나타나느냐』며 되려 다그치
더군요. 이거가 오후 5시정도
로 행인 벽면에 들어온지 만 12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환자 안
되신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알게

【중화민국】 분노를 드러냈다.
『중화민국』에 있는 동안 「사람
어찌 살고나?」는 전학만 빛을 뿐
듯 절제와 양보로 사건 책임의
열매를 찾아볼수 없었으나다.
유가족들의 수사권이 모자랐던
고통에 애��으로 자살로
율교묘히 유폐하였다.
술병임이 솔직히 무책임한 태도
도, 혼란주의의 무성의가
결국
「살아날수 있었던 사람」을 솔직
게 했다고
아수워했다.

금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약간 구체적인 폭력도사가 나
죽었고 사체부검에 일회성으로
금이사의 동서인 외과의사 숙
우경씨는 «손마디 꽈诘 무릎 박
목관절을»에 치중적인 고문 흔
적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유가족들의 «고
문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흘흘 하지 못한 상태로 결말지
어졌다.

기하고...
이러한 관점론에 대해 유가
죽률은 「승가학사의 고민도
업으로서 살피는 것인가?」라고
에 어긋나는 험악하고 일제히
했다.

遺族들이 4년만에 털어놓은 「구태 그상황」

이
밀쳤다

하면서 신경이 짐짓을 먹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

피하던 피해자가 머리를 베어 부딪쳐 죽을 때 가해 피해

그날 오후 3시 45분경 서울
上道洞아파트에서 「남편이 위
독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비행기편으로 釜山대학병원에

금이사의 호주머니에서 뛰어나온 신재인점제[아디법]을 빌미로 벼랑에서 '돌다리를 떠'었으니 위세점을 하라고 요구한 부불은 떨被打한 살이행위라고 유가족들은 주장을 했다.
당시 금이사가 한일합선 토지재매임사전으로 치안봉부 수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釜山 시내 S여관에서 金露熙경위 (42)에게 조사를 받던 중 출도 釜山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맨 처음 유가족으로 벼랑에 도착 된 사실이지만 이를 새벽 4시 10분경 수사관들이 실신한 형을 업고와 '돌다리를 떠'니 위세점을 하라고 요구한 뒤 사람들은 의사들은 거의 4시간동안 위 세권만하다 효과가 없음을 알고 X레이로 검진 뇌출혈을 확인하고 오전 9시경에야 뇌수술에 들어갔던겁니다.

이러한 절정으로 미루어 유가족들은 금이사의 죽음이 '완벽한 살이행위'였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병원들이 숙이사가 뇌에 서 1천2백 80 가량의 출혈로 술쳤다고 말하면서도 병원이 송 3일동안 절대 아무에도 유가족을 이 요구하는 사망진단서 밝혔을 때였다. 대단히 와uku하게 표현 술하고는 이우로 밤 10시 20분경에 숙이사가 숯회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 10시 20분경에 숨을 팬티만 낚기고 모두 벙기고 다듬... 손바닥으로 얼룩과 가을을 수회 라리고 「한국·발을 둘 고 열린 러브콜처를 밥복시키며 부인하고 끝까지 암불통으로 몰고 갔던 헌신적 활동의 작품에 문이 아니었겠느냐면서 「봉생 이 조사를 받았던 두 물을 호소 손바닥으로 얼룩밀미를 구하하고...여관방 얼색이 달라지니 풀리스티 고리로 발바닥을 회구다...발을 떠리려 하자 이

유종회는 현재 재론하는 것은 얼토도 못될 척 편이지만 서울대생 차鍾哲 고려차사 사건으로 또다시 「아동이 삶아난 느낌이라고 일컬 모았다.

所載：

이 제국주의 주 영화 암합 범위에 임 여 려 워 졌다. 고문이
미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탄압을
는 점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부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운 대 상황을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했던 사
를의 주장을 들었다.

103 25 | 日字： 1987.1.21

고문 後遺症에 시달린다

朝鮮

이모 단장과 함께 기겁 고 풀려난 高淑鍾씨 (5)는 지 사전)의 관록집에 놓여 수를 엮어 활동해 관록집에는 끝도 그들이 후유증으로 신경을 면 되니 해금된다. 당시 충선
강도 살인죄가 추가됐다.
朴泰滋씨는 피해자들을 구해 놓았던 계획은 계획은 아예 폭행하고 나고로이로 인한 신체상 징 벌이었고, 간과 험난한 서장을 제 신체상으로 지급되 고통을 이 죄선고후 보석이라 풀려나고 호소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복 실고 있다고 말했다.朴태滋씨 단 하루도 풀지 못하고 암을 복 는 시위로 암화로 신분을 잃을 험해인간다. 안정하지 좋지 않 수준에 놀라워 신분을 놓아 근 아Highly 이례 예술의 보기가 아 빠져나온 듯한 모습에 시름되고 있다.
사건발생 당시 8천명만 흡족히 되 전체에 걸친 대국회가 전개되지만 해 도 보복회사 이무사형으로 낙 라고 숨은 광복회를 밟아 민자 뛰어내리자고 모두 떠나고 단번 다른 혜택을 입을 예감을 전진하 면 됨이 고려해 있어야 허리를 살피며 손해액상체계·소송을 제 기、「2차 베트남전에 대한 민족적 소송에서 노조 전체의 고문을 인 해금된다. 그동안 국가는 고 구부리고 단번 정도가 된 것이 문을 가한 경찰관들에게 구상 다. 당시에 경찰이 할인 정신 험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찰은 고통인 이후 말할수가 없어. 으로는 국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경찰은

사전의 진리와 윤리를 확장하고
증명하는 학술 저술이다. 이 저술은
서서히 서정·수사·과학·철학·사상·현
상·법률 등 각 분야에 걸친 저술을 제
작한 300여 편의 저작으로 이루어져
호소하는 사이에 들어온다. 특히
지금은 정치적 사전의 위상을 하고
있다.

온 벗기고 매질 예사 아픔 못견뎌 허위자백
진통제常用 무릎뼈 나오고視力도 나빠져

결수
국령도주장 살인강도사
전의 범인으로 물렸다가 무죄
로 풀려난 박태영씨 (45·대구
시 동구 신암1동 7-34)와朴
海鬱씨 (38·경북 경주시 활달
동 27-5)·尹伯鎭씨 (35·경북
시 이어동 80-10) 등 세사들은
지금도 고문당했던 악풀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박씨
가 두번 다시 기운하기 쉬운 악
풀과 같은 사건에 말려든 것은
83년 2월 3일 당시 그가 저지
장으로 엎던 경북 영양군 일암
저서에 떠구 저검 경주지청
도모검사 (34) 가
찾아온면서 부

朴씨는 접사로부터 그해 1월
14일 경주시 화안동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발행한 예주인과 살피고
사진전의 옹기자로 그가 지목한
다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그후 접
찰의 조사가 진정화되었고 15
년 2월에 출판되었던『현대미술을 떠나
야했다』 3월에는 아전 10시쯤
경주 이천에 불려간 그는 22일
실인현으로 가서 살피면서 지청
의 편지부설에서 잊었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만 4년이동안 그에
게 말하던 주지 않고 접촉하지 우
지않아『사설대로 불려온 고
문했다는것이다. 수사관들은 그

임을
가리고 순기로서이어 불
펜을
끼워 마구 비를 염이더니 음
식쓰끼기와 우죽이 가득풀
래스릴 통이 거꾸로 쳐박고 차
_be를 장모았다는 것이다. 양손
에 수갑을 채우후 손발을 끌어
책상사이에 거꾸로 대밀고 입
과 고죽가루를 끌어 우죽을
들이는지가 하면 수갑을 뜯어
로 채우고 물어 암 허후 각죽이
로 구타했는데, 朴海善씨는 각
을 선고받았으나 2심·3심에
서 무죄가 확정되며 석방되었으며,
이 사건의 진짜범인 86년 3월
가 대법원에서 무죄판정을 받

그나마 고인의 뜻에 맞았을지
잘 알 수가 없었지만, 그의 뜻을
알았던 고종은 가족 「자백」을
발아트 전학관들이 모두가 현
직에서 그대로 고사하고 있다.
尹노파 예금증서를 훔쳤던 沈
도현사(沈道炫)는 청탁 1년
6개월을 부여하고 출금액을
분수(同僚)와 같이 고인의 신
문했던 두형사는 월성현장에서
부지런히 주고 있다. 또한 高
연 사간과는 별개로 「원행사」
전기하고 있던 것 같다.
3. 3월 1일의 무고한 사망으로
80세 유회들이 친하고자 수백장
봉황이 거짓다운다. 장모자고,
옹모자고, 모마 예금증서를
마구 훔친 전학관을 벼리고 차
들이 가축처럼 구경관들이
모여서 그대로 고사하고 있다.
尹노파 예금증서를 훔쳤던 沈
도현사(沈道炫)는 청탁 1년
6개월을 부여하고 출금액을
분수(同僚)와 같이 고인의 신
문했던 두형사는 월성현장에서
부지런히 주고 있다. 그래서 그려서 개인의 책임이
증발해버리고 제도에 책임을

고문은 끌려나도 고문의 상처는 끝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학살들을 넘나들던 고문피해자들은 그냥 황에서 벗어나도 자신의 주변 곳곳에서 당시를 알게하는 아프기 쉽고 맞드려 하루에도 몇 차례 고통을 되풀이 한다. 고문피해자들은 육체적 후유증으로 두통과 각종 통증, 불량 성기통증, 청력 및 시력 이상, 이성감각 등의 시달리는 것을 비롯, 더운 곳에 무리감기로 고열을 낸다. 고문피해자들은 고문을 당한 고문이나 인간의 심성을 훼손하고 있는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을 봄아고 가족들 의 일을 통해 들을 뿐이다.

◇鄭載龍씨(45·忠南公

시班竹 등 3·3·1 광복주 69년부터 「타도란」의 저자로 「폭정과 사

하심을 만드는 이른바 「타도란」은 1991년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9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3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4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5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6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7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8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9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0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2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1월 10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

었다.

分類采號： 103 武昌

日字：1937.1.22

所載：

교통정부 빈방

보통이 사흘로부터 가벼운
정신이 상봉세가 나타나기 시
작한다.
이질환 고름과 젤을 끌어내리
탈이고 하는데, 향교수는
『인간의 五臟病』에 시각을 박
탈하여 살갗에 빛이 나면서
온느 정신과 함께 예의 예하는
장작한 고름으로 고개를 치운다.
〈尹在錫 기자〉

고문후유증은 상당기간후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나 보상의 시기를 놓치는 수가 많다(사진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젊은이).

교통사고보다도 더 큰 부작용

정신적 충격은 잠재되어 순간적으로 발병

빈방 수용·잠안재우기는 최대의 고통

빈방가기란 유통 회색
으로 불리워서 작은방에 별
다른 시지없이 고급도상자 한
람사만 고급시체놓는것.
같이 사람의 청탁이나 또
는 다른방에서 불러오는 고
들의 고통소리를 들이면서 서
서히 지정하다가 불안·구포
로 이끌리다.
고통이 사흘부터 벼운
점심이 살을세가 날카기 시
작한다.
이제는 고통당할때마다 빠
탈리고 하느라, 초교수는
『임진의 五糧』에 시각을 박
탈당하는 임자에 빠져나와서
온갖 짐짓을 예상 못하는
장황한 고생으로 끝나고 싶어졌다.

持問후유증

中 戎

로 나답니니 각종 휴무증이
교통사고나 추월등의 재난에
서 오는 후유증과 같은 더
설악한 증세를 보이거나 절
이다.

단장이 불가항력적인 사고
처럼 신체의 상해가 무작정
로 나타나지 않고 대개 그도
로 속았던 시험관에 의해 의
도적으로 자행되고 싶어하고
생각나 후유증으로 대기되거나

6개월이상땐 完治어렵다

기간 지나 나다날도 있
는것은 고루에서 밤의 충
이 잠재의식 속에 일컬되쳐
로 일단이 청진자인 청진자

대조교절에 혼란을 만들기 때

反

고문「證人」채택된 경찰관 소환장 받고 도出頭거부

仁川地法 "곧拘引신청...再소환뒤 재판"

保安法위반사건

〔川〕〔義承求記者〕 공안사
전파고인의 골목주장을 밝히

기위해 법원이 조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청탁해 소환장을

하는 한편 경찰에 대해 재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지만

〔義承〕 고인의 변호인인 洪性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證人〕로 소환장을 받은 鄭
경사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자의로 출석할

의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경찰은 그를 구속해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는 경찰관
에게 경찰관을 상대로 쓰다듬거나
손을 털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중지당했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손을 털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03 26 동아

日字: 1961. 1. 22

증인으로 해당경찰관이 공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장이 다음
공판에 재소환 키로 했다.
인천지법형사 3단독 安培
珪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曹基涉〕 고인(26·현금관대사
화교총연·해고근로자)에
한국보안부(한국가보
체고무·창암일) 사건 3차공판
부한 경기도경찰청경찰서
판을 진행시키지 않고
온는 3 재판을 다시 열기로
월 14일에 재판을

〔證人〕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경찰관은 경찰관을 상대로 쓰다듬거나
손을 털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중지당했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손을 털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중지당했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손을 털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중지당했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손을 털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중지당했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손을 털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49

卷之三

題號：703 五

五
〇八

日字：1987.1.22

所載：

朴鎮哲 구의 고 문치사 사건 이후 고 나도 달렸다는 사람의 얘기가 줄줄 있고 있다. 어려도 없는 것처럼 겪었는데도 '증거'를 찾을 데 으로 고소나 호소가 기각되고 과불이면 사례가 되어야 나고 있는 셈이다. 고문이 어쩌면 '제도적으로' 자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 속시원히 과여하지 않으면, 아주 짧듯이 현상을 증거하고 있음을 다를 아니다. 전민희원의 장·金槿熙씨의 변 호인단이 고문에 따른 국 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액을 물린 것도 그럽게 이해된다. ◆ 고문을 달렸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후유증」에는 전신 과 육체가 경제가 다 포함된다. 가령 83년 1월부터 경주 달구장 주주인 살해사건에 휘말렸던 虎冰씨들의 경우도 이 「삼위일체고통」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서둘러 진법이 불장기기까지, 차해를 후대이 씨들이 1년 2개월 동안이나 역을 한 옥실이를 해야 했던

사정은 철수하였다. 1 신에서 무기전쟁까지 선고받았으나, 고종이 면회와 대접의식을 치르고, 그들의 계속록에 앉았다.◆ 재판장에 서기전에 밤에 받았는데도, 재판장을 놓았던 것이다. 나처로 재갈을 불렀지, 양손가락사이에 불과 나루토막을 끼워 돌리고, 양다리 오른쪽에 각목을 끼워 끌어 양쪽후 구둣발로 짚었다. 음식찌꺼기와 물통에, 거꾸로 처녀들의 고리를 당겼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가족들에는 그의 출생으로 비용으로 재산을 모두 날리고, 단번 세 백성이를 한다. 셋 다 골뱅이 들고 생명을 잃었을 뿐이다.◆ 고문은 이처럼 립 담수자를 망그려드리고, 빌린 식구들도 여러 가지로 무너뜨려 죽는다. 별에 따라 제대로 밟히질 젓이 밟히지 않고, 물리적 폭력으로 죄가 널조될 때의 억울함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들어온다. 세상 속에 민주주의, 인권을 들여놓았지만 도 없이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있지도 뻔찮 이런 이유를 찾지 않는 사자를 살았다.

分類
番號

• 1987. 1. 2 3

卷之三

所載

그리고 그녀는 고문은 절을 위한 방안으로 「진술강요 와 고문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의 괴의자신통제 벌호의를 입회하도록 하고 벌호인 없이 이 투어진 괴의자진증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확고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한다.

법부가 지난해 초 확정·발표했던 「형법개정의 기본지침」에서도 진술강요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 개정 방침은 일선 수사관 들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주목 을 끄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인신 구속은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대검찰청 오사부 2과장 沈在渝부장검사는 후리도 외국처 럽 수사관들에게 일시체포권을 부여하고 24시간이내에 엄정이

기정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것은 편법 불법수단 단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점이다. 말만 임의동형법을 실제로 보하였고 불법장기구를 밀실 수사 가혹행위와 위협을 통한 진술장을 인권유린이 마치 전당한 짐수행의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인권유린은 가장 가혹한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하다한 실정이다. 일반국민들은 「거부하고 함께 봤자 손해」라는 불가함에 속의 피해자로 저항할뿐 일선사과들의 부당한 처사를 어쩔수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언어과 척학哲교문처사사건을 계기로 고문구를 놓고 위한 것까지 법적 제도정립을 위한 물론을 일방적이 전문가들은 물론에 국민들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관검사와 변호사등 법조인과 별화자등 관계전문가들은 물론과 격차와 경향의 일선수사관들까지 지도 청탁법과 제도 자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해 보더라도 솔직없는 것으로 최소한 제도의 외형으로는 인정을 보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그 허용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예 무시되었기 때문에 불법영행구금 고문을 솔솔하는 인권침해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拷問추방은 法이전의 문제다

法院서 「白白의 증거능력」 배척해야

한 제동을 거는데 속도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고문적용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재야 범죄자를 치렀다. 실제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고문들이 혐의로 고소 고발된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범인통제에 따르면 이를 불기 소체불을 받은 수사관들에 대한 재정시행이 지난 74년 이후 다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들을

은 고문수사가 계속되며 말썽이 되는 이 꼬리를 둘고 있는 원인으로 △불법설립한 수사대도 △전통지식부족 △인력과 장비 부족 △일제시대이래의 탄생을 향하고 있다. 서울 물가지법 △법률부수석 부장판사는 「고문은 무조건 없어야 하지만 당시 일어나 그같은 이상을 실현하는데는 장애가 너무 많았것이 현실」이라며 「일선 수사관들의 자질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앰네스티」가 고문방지 위 해 제안한 「고문율」의 차에 대해 서는 반드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비밀로 금을 금지하며 △구금상태에 서의 응 △고문에 의한 진술의 적효과를 인정하는 외부집결장소를 포함한 12 가지 프로그램도 이번朴근무 물치사사건을 계기로 눈여겨볼 만하다.

사건에서는 단체들이 얼마나 협력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에 맞춰 각자 자신의 역할을 맡았던 전략을 짜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韓勝基변호사는 「전북경찰의 고문은 위법뿐만 아니라 자본의 재산이 그 진정성이 문제였던 것에 있어 충분히 이유로 여겨지지 않아서 있다」며 「법률이 국법을 위반한 자본의 풍자금을 보호해주는 법은 배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한 고위 관계자는 「정 반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자체 주장이 상당히 풀밭에 놓여있어 고문의 있었거나 광양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 아니라고 말했다.」

부는 「경찰주사관들의 고문을 피의자인 유린이 이를 억지는 온상은 밀수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찰의 한 관계자는 「치안보안만 해도 여러 개의 진 할대가 본부에서 분리돼 「치안 별관」적인 특권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살인기관인 경찰의 강력권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携問防止의 길

林彩背
記

경찰에 대한 불평사항을 조사
시 이 처리위원회를
도지 목회하는 시승을
이 정부는 신설에 관계없
듯립적이고 완벽하게 경
찰에 대한 불평사항을 조사
「警 察 不 滿 处 理 委 壇」장

「警察不滿처리委」 강력한 권한
사소한 權利침해도 용납안해

卷之三

미주주의의 기초를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西歐사 회에서 排除이라고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유럽에서는 설하여 종교 적이유나 양심선언으로 별역을 거부, 특수되는 경우까지도 정직적 암살수와 마찬가지로 보는 철저한 시각을 고 있다.

프랑스에선 지난 1985년 12월 「크리스티안 파리트」이라는 24세 청년이 살해당한 이후에는 바로 살인 암살죄로 위와 마찬가지로 20~2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조례 규정에 있다.

人權 유린 감시기념
政權 유리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 운동

言論、人權유린 감시기능 철저
가혹 행위發生 땐政權유지안돼

프랑스

사독재가 한창 기세를
부렸을 때면 2차大战은 물론
사소한 일들이 시험되었던 지난 49
년전주의 혼돈기(45~55년). 무기장에 구불을 밟아 무마
에는 수사관서가 고름맞자.
백강유동 가수행위를 자행, 人
권을 유린하는 일이 많았다.
「자제의 통치의 王」 이라는
舊漢사소한 범시대의 빠리꼬
온 악폐가戰後混居기에도 그
대로 남아 수사독재의 정신
적 육체적 고문례의 한
자발 계에서 「무마」고가 결찰
하고 주변의 자체도 믿기 어
렵다고 罷免, 이같이 관찰

55년이후 自白강요 자

55년 이후 自自 강요 자취 감취
拷問경관 7년이하 징역 규정

美國에서 벌어나 목적이
한국에 경제이 차관에 레이
사용하는 경우는 체포당시
시체를 놓았으나 고의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징계봉이
심판 이어가도록 자치할면 오
직접 고의자를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가혹행위가 있으면
이제부터 신뢰로 전에서 고
준수해야 한다. 전화행위는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법이나 목적이
한국에 경제이 차관에 레이
사용하는 경우는 체포당시
시체를 놓았으나 고의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징계봉이
심판 이어가도록 자치할면 오
직접 고의자를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가혹행위가 있으면
이제부터 신뢰로 전에서 고
준수해야 한다. 전화행위는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법이나 목적이
한국에 경제이 차관에 레이
사용하는 경우는 체포당시
시체를 놓았으나 고의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징계봉이
심판 이어가도록 자치할면 오
직접 고의자를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가혹행위가 있으면
이제부터 신뢰로 전에서 고
준수해야 한다. 전화행위는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법이나 목적이
한국에 경제이 차관에 레이
사용하는 경우는 체포당시
시체를 놓았으나 고의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징계봉이
심판 이어가도록 자치할면 오
직접 고의자를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가혹행위가 있으면
이제부터 신뢰로 전에서 고
준수해야 한다. 전화행위는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피의자 가혹 행위당하면
배상 청구액 數百萬 달러
많다.
美國의 경찰원 악진도록돼
있다. 그래서 검찰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기소하지 않을 이
법원은 특별검사를 엄명 사
건을 다루도록 한다. 특별검
사는 市郡등 지방에 이르기
전을 저지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 가혹 행위당하면 소송

美

警察 육설도 申告대상

各國 고문방지 제도

까지 사양에 따라 모두 일평
될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미국인의 지난 66년부터 「
강간죄를 전용시킨다.
」

이부여도 부정으로 생활을
족쇄를 채운다니지 봐야 비정
상적인 구름을 못하도록 하

까지 8개월동안 이기구에
접수된 불만던전수는 모두 3
천 5백 81건에 달했는데 그중
21%가 부당하게 험한 상용
했다는 것이다. 15%는 필요
없이 우편물을 증(신봉)하여
활용할(합)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위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우편이나 민원서류에

은 이를 칭기로 학구았다"고
못하고 있다. 또 청사 소송법의
[이익성에 의문이 있는 자에
은 증거로 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을 자제한 수사기
관청에 대해서 청사 소송법
회장 지침도 명문화하였다. 청법
제 195조는 "수사 관계자가
피의자에 대해 폭행 고문 학
대 행위를 하는 경우 7년이
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다고 되었다.重刑이다.
수사당국의 위법처사에 대

大법씨(25)는 경찰이 [금속 헌
드루]를 사용, 양손 염증 가라
의 지름을 강제로 제작했다는
는 이유로 국가와 縣民 청사 소송
서장 재판장을 상대로 위법
료 1백만엔 청사 소송법에
기했고 이것이 『조선일보』에서
총동파기도 했다.

임의同行를 을 誓民을 통전 개

李新民 총재 會見

拷問 사건 국會特委서 조사하자

議員選舉法 개정 與側子상 밝혀야
拘束者 석방 救免 言基法 폐지 촉구

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李총재는 이날 중앙당사에
서 가진 연우기자회견에서
朴鐘哲은 사전은 현 정권의
율리적 도덕적 수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고 구전하고 「현정권이 저질
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받
면서 김 전설이라면 이당에서
고 물을 일으키고 싶으니 키겠다
는 결의의 표시로서 馬鍾元
군(85년 10월) 金成洙(86년
6월) 中浩水씨(86년 6월) 등
의 범사 사건에 대해서도 철
저한 재조사를 할은 물론 수
사법에 억행되어 지금까지
기 위한 방법으로 與野가 국
회에 설치기로 학의한 특별
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고문
수사에 완전히 조사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어

떻게 있는지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총재는 「정부 달인이 고
문구전을 위한 제도의 보완
방법 기구에 대해」 영접부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고문구전에
는 불법권자의 권리와 행정권
의 법제의 보완은 부차적
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 3면에 관련기사

李총재는 또 「정부 달인이 고
문구전을 위한 제도의 보완
방법 기구에 대해」 영접부에서
주장했다.

李총재는 이어 「율리는 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말

나라의 잠재가 자속적인 번
갈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론에 비추어 같았지만 아니
라 우편을 발송하는 결과만
가져온 것이라고 반대하고 그
모든 권한이 국회의 삼성부
법원원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총재는 또 「정부 달인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말
했다. 이라고 밝혔다.

풀어야 한다면서 고문구전에
는 불법권자의 권리와 행정권
의 법제의 보완은 부차적
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 3면에 관련기사

李총재는 또 「정부 달인이 고
문구전을 위한 제도의 보완
방법 기구에 대해」 영접부에서
주장했다.

나라의 잠재가 자속적인 번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론에 비추어 같았지만 아니
라 우편을 발송하는 결과만
가져온 것이라고 반대하고 그
모든 권한이 국회의 삼성부
법원원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금번 「민주화의 해」
로 선언하여 기원코 「민주화
를 달성하는 해」로 삶을 걸을
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

구속자들이 마치 학의개인의
불모인듯 주장을 하는데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

해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地
自制여기를 획책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결단코 이를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총재는 또 「정부 달인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말
했다. 이라고 밝혔다.

이념의 원칙을 존중하는 小
선거구제와 제의한바 있다.
현정권이 年內 총선을
공언하고 있는 잡금의 사정
에 비추어 본래 국회의원선
거법개정을 무작정 놓두지도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당측의 구상을 밝힐라고

총선을 풀었다. 李총재는 「민주화의 해」에
정부의 결단을 내려 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 구
속자와 석방과 사면 북권 및
수배제 ▲ 숨무루 원의 정직적
증립 ▲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 등을 풀었다.

총선을 풀었다. 李총재는 「민주화의 해」에
정부의 결단을 내려 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 구
속자와 석방과 사면 북권 및
수배제 ▲ 숨무루 원의 정직적
증립 ▲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 등을 풀었다.

총선을 풀었다. 李총재는 「민주화의 해」에
정부의 결단을 내려 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 구
속자와 석방과 사면 북권 및
수배제 ▲ 숨무루 원의 정직적
증립 ▲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 등을 풀었다.

했다.

李총재는 또 「정부 달인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말
했다. 이라고 밝혔다.

이념의 원칙을 존중하는 小
선거구제와 제의한바 있다.
현정권이 年내 총선을
공언하고 있는 잡금의 사정
에 비추어 본래 국회의원선
거법개정을 무작정 놓두지도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당측의 구상을 밝힐라고



李敏雨 新民黨 총재

李敏雨 총재는 이와 함께 고문근
정개를 제의했다. 범국민운동의
연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
우에게 일의 동행 여부를 알 수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있을 때마다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디에 어

비) 「실례비」인 인간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었는가. 인 고문을 전시할 수 있는가. 인 자이 국가를 만든 것이 실수였다. 결국 폭력의 절대화는 종교라는 마술마법이다. 국가를 전우로 치워라! 종교도 전우로 치워라!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老子라는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이다. 道의 조월선과 인제선을 지향하는 自然주의자는 국가에 일체의 폭력을 허용하기를 거부한다. 가 장 이상화 전자는 백성이 스스로 절하여 간다고 그 평화이며 권력의 풍물자가 얻는 조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老子의 자연주의는 일류사상가 장수한 아나키즘이다. 통양의 모든 체제를 전복하는 민족주의의 바탕인 태평사상의 근원으로 작용한 것이다.

를 봤을 때는 무언가로 드러나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서로에게 불신하고 개돼지 후회로 풀어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에 그들이 저에게 가진 것을 까. 어떠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는가.

그 해 학년 험로 네 차례 응노제

존재이유
는 문화
를 전제하
며 갖는
사들은
들을 정복
도 이용하
자 그 자체
도 도덕의
려나 내

를 갖다
하는 힘을
둔다. 권
력과
자본
을 갖다

人權침해와 道德的 자각

人間은 手段아닌 궁극적 目的
누가 감히 이 尊嚴을 짓밟는가

金容沃

◇前고려대교수·철학◇



여지지 않아
로 말아야
되던 그
에요 그
이 가장
다음이요
것이라
면 잘라
제사를
이나 흥수
같아
넓은
백성은
같은
이 한국의
항상 퍼지
해야만 하
명사상이
를었다
武王이 紂
로서 일제
연우가 대
하는 농을
도전하는
다. 노점과
나는 지나
장을 졌었
일기를 시
이 었다】

하는 것은 근대 성장을
할 수 없다. 그
시가 단순한 변화
는 균형적 개방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의 혁명사상의
가능성을 열었다.
귀한 것이며 그
일들이 가장
일들이 하느님께
지울 수 있고 하나님
에 맞게 잘지내고
가나면 그들이
치울 수 있다.
아치를 수 없는
영구 속에는
자에게 잘지내야
는 주제라는
도사라고 엉단
도정이라 부리고
를 찾고 했는데
을 시해함이
답했다. 「……
탕이 當이 肚을
나쁜사끼라는
나쁜사끼는 한
자는 소리는
해했다는 말이

간로다 가간 기통 치아修자명을 의제적荀 그것의 와관인 唐周트구가자계
흔이었지만 복론부정을 치우는 그림이 재해당연히 훈운이 이전제

별로지않을의주체로인간의인간성이제국의의 주의에대한교체제의설전화법이있었고,이법이있었을수있었다.

았는데 있다. 드라마에서의 정자와 이해
로서의 정자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것이 서
설의 定言술(定言術)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 브로드인 「불교의 개
화에 來釋국의 종교
한마디로 「불교의 전통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교류한 赤子道大學生」
하는 부제인
동방인

의 전통학도 아니고, 전통의 보
존화되고, 당시의 도덕적
제도화된다.
나는 전통을 「신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마지막의 마령이 빛나는 것
과서 학문 신기술 출판과 유통
이다.」「마지막」이라는 말은
스마트폰과 같은
제작하여 배포하고 후진
세계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후진적
정신가치체계인 「컬처」 시티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올바르게 하여 자

까 유교학부이란구. 이제 유교
을 산학부와 근대학의 전신자분
으로 친숙해지라구. 나는 유교를
천중하지 않는다. 나는 전통이란
복구하지 않겠다. 으로지 나와
우리사회의 비유교화에 힘을 뿐
이다! 도대체 예술과 도학 아전
의 아류도 못되는 경과를이 곤
장보다 더 품위한 고운으로 제행
제를 죽이고 있는 데 유교가 다
뭐나!»

유교와 근대화라는 문제를 논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표로
테스턴 유틀리의 대안을 유교에서
찾은 잡학관념에 사로잡힐 필요
는 없다. 기록이 아님과

이 문제다! 그만 흔들리고
미가 복잡해졌고 또 그것의 규정
은 우리의 자각적 선택에 의하여
가득한 것이다. 예로부터 내가
말하는 비유교학은 「풀풀한」의
비신화화처럼 유교의 제거가 아
니라 유교의 해석이다. 즉 새로
운 근대성을 규정하기 위하여는
유교 자체가 안된다. 유교는 구조체제속에서
설정한 가치관이다. 그것이 있음

것이외에 과연 어떠한 인간관과 어떤 미관적 사회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사회는 어떠한 도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 말대로 수준을 높여나가니하고, 사람에 처벌은 전부 올려주면서 이성적 정통학제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의 흔한 대여로 책임이 없는 것일까. 유교의 근대화라는 침조적 해석은 절실히 위인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근대적 합리적 제도의 창출이라는 사회과학적 창조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는 과연 어떠한 근대적 제도를 창출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떠한 시민사회적 민주질서를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는 매우 복잡한 일이 고도로 잘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는 문화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나는 다음의 두 최소수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황제**를 견주기 위해 **종주**가 하는 말이 「**종이** 뾰를 수축과 같은 기치로 **종결**것이요, **군이** 신을 개돼지처럼 보면 **신도** 군을 놀라니로 볼것이요, **군이** 신을 쓰레기처럼 보면 **신도** 군을 놀랄것이요, **군이** 신을 볼것이다」 여기서 **종자와 군치자의 관계는 상대적인데 조건적이며 쌍방이 이며 계약적이다.** 서양의 **협정**상은 변환하는 역사의 실상에 불편하다. 이 **상호작용**을 떠나 **선우는 전함이** 강한데 밤에 통당한 **이언한 범회와 불변, 협세부쟁과 협세부쟁,** 그리고 험실과 이성의 전통을 **통증하는 시장** 속에서 **즉 역사속에서** 파악한다. **풀줄** 인간을 어여쁜 물질을 살피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구현자 물질으로서 단별어야 할 것이다.** 이에 위에 있는 어폐한 교육이 **별로 근대 성의 전제로** 밟아들일 수 없다. 고 **로 치사자**의 가장 절경적 가치관의 **우리는** **복종**하고 그리고 그의 고 **봉함한** 수단은 **인간을** **기억**에 **제작**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당 그보다 이리한 사정까지 있는
황금은 「正心誠意金錢物」이라
는 광명제 자상의 자작의 생활의
동물자작으로 이른 것이라고 「大學生」
의 80년전은 주장하고 있다. ※※
학이란 자상의 구체화 생활의 구
원을 일컬어지기는 「大學」이니 「大學」
답지 않은 사정과의 생활이란 광명제
로 알수록 하루도 거칠지 않던 「大學」
원과 대학원이 있었던 韓國大學의 전
端이 現代大學이었다. 조선의 규제와
둘의 차별화된 노동적 차차를 이루
하였다. 이 상부의 전통이었다.
우리에게는 조상의 허여 있고 물
화의 유산이었다. 그리고 과학
기술 체계까지 물고온 삶을 나누
들의 학교 학교 등학교였다. 어
찌 그대들이 한루 아득해 이르면
인간종연생성을 지祧이란 하는 누가
쓸쓸히 국립대학원에 학부
로 무너져버렸고, 출판하는 가. 杜鍾
哲의 평생의 통증 우리 사회의
근대성이 새하얀 발전이란 종
대학 절대를 묵주하고 있다. 본
래의 변화가 악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자작적 결단
에 이끌어만 가능할 것이다.

拷問致死에 최고死刑,,

大韓辯協서 特別法제정을 건의

殺人과 같은 最高刑으로

현행特加法은 無期~3年 징역

大韓弁護士公會은 27일 고문을 근
절기 위해 수사기관의 고문처
사를 살해하기로 보아 최고
사형(死刑)을 가볍·무기징역)

까지 처할수 있도록하고 「변
호사인권보호법」을 제정하려
는 내용의 특별법제정
을 추진키로 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산하
인권위원회가 법률개정소위원회
회를 구성했다. 변호사인권
법제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
제도로는 인권주체 보장이 미
흡하지만 법제화는 수사과정
에서의 변호사

과 함께 고문방지에 적극적
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변호사인권보호법은 고문
방지에 있어 경후 수사기관에
큰 경고효과로 고문을 극복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인권보호법은 83년 개정된
법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

다. ◇변호사인권보호법은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
항을 신설해야한다는 것.
또 변호사법회법도
도 저지될수 있게 된다.
◇변호사인권보호법은
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절기 위해서는 피의자 묵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 변호사
를 복구·변호사 소송력에
멸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수사과정에 변호사立會明文化도
살인은 고문은 의도적·계획적
인지를 살의 최고형을 감도록
그는 또 고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형을 감도록 해
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권보호법은 고문은
법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
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변호사인권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통해
변호사인권보호법은 수사과정
에서의 변호사 예회권보장을
통해 하드「고문·불법체포·감
금·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인권보호법은 고문방지의 실효
성 있는 「모델케이스의 문치사의
최고형을 감도록 해야 한다.
그는 또 고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형을 감도록 해
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권보호법은 고문방지의 실효
성을 비교해 불법 살인은
우리 우발적인 경우가 많
이나 고문은 의도적·계획적
인지를 살의 최고형을 감도록
그는 또 고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형을 감도록 해
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警察署마다 捷問신고센터 설치

鄭내무 의혹있으면 眞實밝히는게 당연

28일
微塵溶水母부장관이 각 일선경찰서에 고로신고센서의 고문행위를 뿌리뽑았다 고 말했다.
鄭尚鎬은 이날 李永昶치안부부장에게 빠른 기 yapıl에 고문신고센서를 설득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鄭尚鎬은 또 야당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한 金成洙 馬鍾元과 申鶴燭 등 의문의 범사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고문에 의해 숨진 후 유문 기됐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치안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하고 의문이 있으 면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鄭尚鎬은 또 야당의원들이

경찰들이 연행되었던 날이 됐다고 주장하는 54명이 해서도 소재수사를 하도록 대로를 하고 이를 5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도록 치안본부에 이미 지시했라고 밝혔다.
鄭蔭환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번 차鎮哲과 고국지사 사건은 내부부와 치안부가 잘못한 것이다. 끌립니다. 이를 계기로 어떻게 하든지 결코 의 고문행위를 뿐만이겠단다.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말하고 「집회를 하루 더라도 하고 어울어붙어 넣어질 생각은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부는 이날 鄭蔭환 국회의사 담당한 내용을 과 여의의원들의 지정사항을 물을 간찰관「장관이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을 작성해

의문의 鬪死사건 金成洙 군사관	6 시경 釜山시 구포 한국통 松 島 앞바다 에서 서울대생 金成 洙 (18·지하·과1년) 이 고기 를 잡던 수 바다 에 위해 17m 깊이 에서 무게 4t	의혹을 품고 재수사를 하는 범사자 3명의 사체 발견위는 다음과 같다. 금성洙 군사관 21일 86 년 1 월 오후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내부부 와 치안부는 이에 따라 고 문행위고급과 대체 방안등 의 조치를 끝 구체화할 방정을 이다. 李 치안부 장관은 28 일 각 임선경찰서에 고문
---	---	---	--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루체를
비롯한 경찰의 고문행위는 절
방안과 서울대생 金成洙等 3명의 범사 사건 조사 문제를
최종정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학과 4년)이 학쪽
팔이 부리자고 코와 귀에서 피를 흘린 상태로 숨져버렸는 것을 서로 밤사이 발견했다. 심
결정은 봉구이 자필로 경을 쪼여놓은 쪽지가 발견되었고, 사전협장에 있던 신발이 봄바람에 맞지 않아 차운것이어서 얹자로 남
의장을 신어 한 홍석이 있다 며 타설이라 고주장하고 있다.
申虎樹씨 사건
었던 申虎樹씨(24 金龍慶水 시蒟暉33)는 「川사태관련법」으로 86년 6월 11일 결혼판이 라고 자침한 3명에 의해 승

고朴鎮哲군·고문치사·사건에
에 환의, 지난 26일 저녁 7시부
터 월야 농협에 들어갔던 재
야 6개 문화단체 회원 1백
여명은 28일 낮 11시 서울 西大
門구 北阿鳴洞 민문협사부 실
에서 농성을 풀면서 결의문

을 발표, 농법전통 전파에 기여
들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문의 瘋死 拷問여부 밝힐터
행방不明者 소재수사도 竝行

國梁山^{국상산}을 끄러리 대미 산^{대미산}에
돌풀에서 면암^{면암}에 패밀^{패밀}
결친 범자체로 밝혔다.
申씨는 발전당시 양쪽^{양쪽}
이 꾀로 얼굴^{얼굴}지고 무릎과 양
쪽^쪽풀에 상처가 나 있는
태로 솟았었다.

卷之三

大韓辯協의拷問공청회

社説

所載

1987. 1. 2. 8

日字二

703 23

조를
추방하는
길도 인간정을
말하는 그
법전에 대한 국민의 저열한
인식과 고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
면 안된다.
고문사례 보고자들이 스스로 실토
하듯이 「루터울 속에서 고문을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 풍토」에선 그 주장을 기
약될 수 없다. 어떤 제도적 보호도 현
실적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보고자들의 한사람은 「루서운 폭력
앞에선 자유 정의 평등 평화를 촉구
하는 인간의 신념도 신기루에 진나자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비단 종교
권력의 윤전적인 체질문제가 없는데,
고물들 막는 제도적 장치들도 신기루
에 진나지 않는다는 罷免로도 들리다.
따라서 고문과 죄를 녹여하는 토론
자들의 빌언이 거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쓸리게 되었지만 말이다. 일어섰
는지도 몰랐다. 물론 불가능이었다.

하고
거기에는
나를
거울로
자령도
는것
은
아니다.
현장이
그
하위법률
도
예외였다.
구루의
법지를
규정한
다.
설상과
구루의
가장저劣의
대상
이
되었다는
특정법률과
법률에
관련
들도
무엇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루의
자행
되거나,
그것은
한마디로
권력의
비
민주성이
여전히
찾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토론자들이
구루를
통해
제1의
권력을
바로
세우는 「제2의
국유봉」
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도
무
는
아니다.
나라의
나라는
人權을
존중하는
나라의
이름이다.
人權의
존중은
결

問 대체 공정회는 고인이
대한변호사협회이 拷
얼마나 비인간적인 범죄
인가를 거듭 실질검토 해
주었다. 사실 고문은 「罪
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
는 罪端犯의이」 拷

한국인이며 위험한자는 예의주시해야
제를 위해선 구인구조장치도 놓아 마땅히
도 우구되나. 수사자살이 불법임을 강조해
시하기 위한 법학인 윤리학도 놓아 그
나지나쳐버릴 과정은 아닙니다.
국회의 상설적인 입법특례법이란 것도
필요하다. 그 위험화가 국정조사 사전권한
갖고 상시적으로 인권침해를 감시하
고 또한 불법을 파악해낼 수 있다면
온갖無實의 기구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뜻이 다른지를 아니다. 그 문맥에서 또 다른 톤자들이 「인간존엄의 유통망」의 전개를 제외한 뜻도 충분히 고려된다.
굳이 이번 공정화의 「한국전」을 찾는다면 고문의 추방을 혼신적으로 확인하는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평화민족운동으로 정개로 접두된다. 궁금스러운 스스로의 大悟覺醒과 체질변화가 행해지면 더욱 고문추방이 다진되는 민주화와 인간화의 속도는 빨라질것이 불문이다.
그러나 권력의 그체질변화를 촉진하는것은 역시 국고적 양태위에서의 민주화와 인간화의 유통망이 밖에 없다.

다면 그의 문체는 그것을 어려워
진하고 확대해나가는 절이 가장 훌륭
실적 대작장을 갖는다. 나아 솔리다. 고려
의 실상과 그 예전에 웨이를 直觀する
하고 또한 韓國의 문체에서만 고려
문체 밖의 원래로 쳐받아 열린다는 점
을 자랑한다. 헛단은 것들이로도 대
한 민족사 혼동의 이면 「고려 문체 경증
학」은 노후의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 문체제기와 서법의 단서가 헛되
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요
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래야만 文體학의 진수도 찾을 줄을
이 되지 않을 것이다.

分類
番號

703 正

日字：

1987. 1. 3 1

所載： 2 版

동아

搭問주방國民운동本部주진

大韓辯協

政治人배제 民間기구로

○ 속회장회에 이는 틀한
행사 소속법에 「설립수사」 「별수사」 「임의증명」 등 수사 기관의 탈법수사
관행을 규지하는 면밀규정을 살피는 방안도 마련해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
침이다.
· 속회장회에 대한 법제회장회 「고
루족방법국민운동」에 정당화
정지인을 참여시킬 경우 정
치생태문에 민주화운동참여의

의
제작장인 고문구전통관과
을
제작장과 고문구전통관을
한
번역기능을 갖추어
을
추진키로 했다.
제작장은 30일 오후
위현장을 찾고 지난 28일
고문구전통관에서 수령된 이정관
을
토대로 고문구전통관
노의 한글에 인권위원회 사무처
에
고문구전통관 대체 소위현장을
만들어 趙淮熙(趙淮熙) 洪姓
字
趙淮來(趙淮來) 사용
위원으로 하면서 범국민운동본부
기구협동을 위한 구체적
부처업무를 들어도록 했다. 식
이
제작장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
및 정치인의 활동을 배제하고
고수민간인권단체와 각계
의 원로를 담당해 협력하겠다
는 점.

人權침해 毒素조항 개선도

민에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을 별여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고통을 퇴치하겠다는 취지에서 「고통방지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적이 허접한 우려가 있다
는 의견이 인구위원회 사이에
서나왔기 때문에 비정치적 미

구준하고 지속적인 시민운동
을 벌여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고문을 퇴치하겠다는 취

지에서 「고무족」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今狀 있는 漣行 금지

2.3
501

**拷問
감로자
지회관
連帶처벌**

유지하고, （모든）조사는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한다는 원칙을 준수, 지하실 속진실에 서의 조사로써 불가피한 경 우이외에 심야조사여제（심야의 통행시 통행로적 장소 및 신분을 가족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등 수사의 합리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治安本部 拷問근절대책 발표



李永昶본부장

경찰 業務쇄신방안

피의자의接見權 보장 證據수집후에 채포
地下室·심야 조사금지 同行엔 家族에告知
수사異議申告處 설치 人權자문위를 常設
실적위주의단속 지양 長期拘禁 일체금지

李本富 장은 이날 치안부
가 서울대생朴鍾哲군 고문치
사사건을 계기로 고문도정을
위해 마련한 「경찰여루 쇄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죽부정은 또 고령행우는
는 물들은 갈물자와 지후관을
함께 처벌하는 연대책임제를
실시하였으며 수사관의 편
파 부당수사와 가혹행위를
개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방에서 달려 처리토록
다는 것이다.
치안본부는 시도경찰국과
좌경의식화사법을 전달수

한에 사자에 과정이 수자와 꿈이 회계사세
무사 광세사 감정사 기술고시
합격자들 유자 격자를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고 사시 행정의

부터 독립인사제를 실시 키로
하고 이와 함께 부족한 대중요
원 4백 73명을 증원 키로 했다.
이밖에도 치안본부는 경찰
관자질방성을 위해 전문부 야

하는 「궁암별墅」을 새로
설, 기존의 대형별墅과 분리
운영할 방침이다. 또 치안본
부대공수사 2단의 요원과 업
무 내용을 대폭 서울시정당공
부집으로 이관 치안본부 대공
수사 2단을 기획·연루에만
치중하고 서울시정당공부집
열부를 강화해서 대공집권론수
자로 유포되는 것을 막을 예상

The image shows a decorative horizontal border with a traditional East Asian dragon motif. In the center, the Korean characters '桃林 (도림)' are written in a stylized font. Below them, the text '新春 새우料理特選' is displayed in a smaller, bold font. The entire border is framed by intricate, swirling dragon patterns.

新春 새우料理特選

新春 새해料理特選
地主의 特級 中国人 料理十ガ

桃林의 特級 中国人 料理工房
마련한 왕새우와 바다가재 등
正統 中国式 海產物 特選料理.
桃林의 特級 中国人 料理工房

淡白한 맛과 신맛은 입에서
季節의 味覺을 즐기십시오.

※ 入学과 卒業 祝賀모임등 소규모

宴會用別室제공
中華人民共和国酒廠

※ 샤오상酒. 베이취구酒中 中国
特產名酒具備

●予約/問議：電話771-10 交)464/5

호텔롯데

政府人權特委會

總理直속 30명내로 月內發足 제도적改善 연구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놀라게 했던 그의 예상과는 다른 그의 행동에 대해 그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놀라게 했던 그의 행동에 대해 그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놀라게 했던 그의 행동에 대해 그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추방 民主대행진

新民黨·한국기독교회협의회·
한·민統聯은 49년 단체로 구
성된 「故林鍾范」과 「国民文化회」
준미우월회」는 29일 상호
서울蓮池洞 기독교회관에서
국통위월집단 연석회의를 갖
고 어진[敬善]에 부구의 49
재인 「国民文化」과 「國民文化連盟」을 갖자고
제의하고 「國民文化」의 활동권리를
발표했다.
준미우월회는 韓國基督教聯合會

3월 12시 시민들이 서 있는
곳에서 3·1 운동의 진
화자인 파국 운동장을 향해
인도를 따라 행진을 시작.
하우 1시 파국 운동장을 도여
추도 류념·애국가·만세삼창
제연행·걸프로작 거루▲고문
승으로 행사를 진행으로 했
다.
중미수교하는 노보 행진의
목적은 ▲수교통 고문을 생자들
에 대한 추모▲불법집단수금·강

부(父)친의 설립요강을 확정했다.

조직을 운영해 주도적으로 활동한다는 것. 나머지 10명의 이사는 전 주 총회와 회의원 회의와 KN CCO 인권위원회가 각각 5명씩을 추천키로 했다. 이 운동본부의 경비는 범 협의 부설금과 강연료를 매수 입·신고회 특별출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대한민국은 11일 삼일이사회를 거쳐 이 운동을 최종 확정화해 서울鍾路구 虎林동 면 호사회관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살진지원도구 기록했다.

법연행례에 신고 접수 및 처리
△ 고문지상조사의 고소 고발
△ 범행구조 △ 강도를 벌간 △
고문사례 보고서에 전화 개최
△ 표어 포스터 복수 불법집회를
거부하는 캠페인 △ 범행구조 등
으로 꾸준한 고문사례 박제를 벌여나간다는 것이다.
대한법협이 주관하는 고문
대책소위원회는 그동안 저작

【이 운동을
다행히 일컬어주는 이 운동
본부의 설립하지에 대해 「자
본부는 그자체를 계기로 혁신과
국민적 학회를 바탕으로 사회
개혁각종이 활성화하는 민족민
족 고민과 문제를 풀어나가고
국론 가혹행위등 광장민족의
호흡을 감시 저지하는 상설
자구구를 설립하려는 것】이
밝혔다.

申告접수 告發 등 말야

辯協「拷問卒業

日字：1987.2.11

所載：

分類
番號

11
일 얹이로 고문실무를 조사
하고 고소고발을 법률로 조활
동을 펼고 국주를 미워하고

교양에 담당하고, 독자적인 재정의권을 갖출때까지 경상 운영비를 지원하며, 이사장 10명의 축천구역을 가점으로써

65

1987. 2. 25

所載:

版

동아

칠레등 捷問자행
UN人權委

[제네바]「[국제인권법]」[카스탄리][24일]「[국제인권법]」[유엔]「[아이란]」[인권위
나파당세력을 풀이 시민도록」[스리랑카]「[인권위
고려에서 고문을 하기 위해 자행하고 보고Langni South Korea」
했다. 고문을 하기 위해 자행하고 보고Langni South Korea」

1987. 3. 18

所載: 3·4 版

東亞日報社

警察미술전 捷問자로 霧散집회

미술동아 미술협의회
朱在煥·申鶴澈가
후5시 서울鍾路구 密散를 17일 오
의5 「그림마당 민」에서
최활 예정이었던 「미술
나타난 고문사례」란
드 상영회가 경찰의
무산됐다.
민미현죽은 이날 「반고문
전 행사의 하늘」 미술회를
저자로 저자로 개
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가元東石씨(50)를 조성, 국
내외작가들의 고문과 관련 작품
들을 소개하는 슬라이드상영

日字: 1987. 3. 19 所載

동아

捷問주방운동 앞장

기독교회협 성명

한국기독교회협회(K
NCC)는 19일 오전 서울鍾
路구 蔣總통 기독교회관에서
고문 및 폭력주방과 선교자유
침해 유언비어 점령처벌법
납봉들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다.

No.3 2월

日字： 1987. 3. 14

所載： 〔版〕

不審검문대상 지전도
 ○ 朴鍾善부여주원여구
 위원(대검찰장)은 지난 9일
 자 「법률신문」에 「朴鍾善군
 사건을 새로운 전기로
 신장과 협사 소송절차의 보완
 계발함」이라는 제목의 기사
 를 통하여 이 노동부에서 고문
 실각한 여행자 소사를 대 한
 미주적 기분질서에 대한
 악마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실각한 모욕이자 과과이
 한 살각한 모욕이다.
 한번 절간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분개하면서 그를 탐하
 고 않을 게 만이 아니라
 른 어느곳에 가리워진
 운 노동자를 이런 불행이
 블행이 베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그 「비중」에 민족의 지적하기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노동부는
 법조계에서 화제.

동아

日字：

1987. 3. 27

所載：

동아

『**大韓聯協 文仁龜회장**
전국法官들에 인사장
 文仁龜회장에게 전국法官들에
 인사장을 보내『노부신 경제성장
 과 농촌문화수준 성숙화 시
 민의식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아전까지 암울인 고로이
 존재하는 것은 노부 큰 수친』
 라면서『판사·검사·변호사가
 삼위一体으로 법률가로서의 사
 명을 다하면 고문을 뿌리뽑

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文正尚** 또 인사장에서
 「판사들이 고통경찰관을 두
 둘하는 듯한 정부가 있었던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며 검
 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판
 사들도 법정에서 고고인들이
 응조리를 취해 소임을 담당

1987. 3. 30

所載： 2

拷問주 방본부설립논의
韓協 회장단회의
 대한법협(회장文仁龜)은 30
 일 12개지방법호사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고통경찰관
 본부설립과 인권침해방지
 종합대책을 토의했다.

동아

1987. 3. 30

所載：

2 版

동아

『**교도소 폭력행위**
추방대책 등 노의
拷問 저지 대책 펴
 고문 및 몽골조작자지침을
 대체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서울鍾路區 遷道洞
 관에서 金大中 金大中 총리(司庫院)
 콜롬의장동이 참석한 가운데
 이 우희석 고종환 위원장

의를 맡고 있는 川교도
 永登浦구치소를 교도수내폭
 력 및 구 탄핵위임을 방지할수
 방안을 전통 논의했

朴鍾哲군 고문사건을 둘러싼 대결의 전면 재수사는 끝났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았다. 는 것은 무슨 깊이일까?
도대체 얼마나 공포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길래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의 수사발표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까.
물론 그 이전에 결찰이 자체 수사를 실시하였고 지점에서도 재수사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니 공포권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이제 법정의 수사에 의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울 것 같다 는 생각도 든다. 아니 이제 수사라는 행위만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의혹의 읊어리가 국무총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 조차 든다.
야당을 비롯한 재야에서는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통한 새론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

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민들은 출렁이 삶처럼 임했고, 점점
부역시 커다란 불신의 멍에를
질수밖에 없게 되었다.
언론 역시 한결같이 수사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 무엇
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누
구가 관계했는지에 대해서
는 조사가 멀지 않았다고, 마치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투로
『빨리 모든것을 다 말하라고 재
촉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아있
을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간
의 인식차이가 있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며, 이제 현
실적으로 남은 일은 미진한 부
분들이 재판과정을 통해 과제
처지도록 모두 지켜보는 것인
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응
어리가 풀어지지 않는것은 밤중
철근이 무슨 고물들 더 달렸느냐
가 꿈틀해서도 아니고 범인은 꽤
에 누가 더 가덟느냐를 알고 싶
어서도 아니다. 본질적으로 드는 권리

례의 도덕선,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유리」에 대해 주권자로서 사회의 성령으로서 갖는 회의에 대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부여되는 과정
는 고인이 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뜻인가?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당한 위위록여 되이사자별로
는에기입야정장되는번건가의다

拷問추방계기



을 밟아야
느다는 것도
일단은 두렵 한다. 정
작 우리가 책
일을 지워야 할
것은, 그렇게
자족한 고문
구조적 있게 한
「우리 사회의 부조
또한 「다.

東亞日報社調查部

68

703

日字 1987.6.6

五〇一

국제反撲問협약
26일부터 發效

26일부터 국제反拷問협약 [유엔결의문]에 발효된다. 국제구제기구로 2026년 5월에 한 국가의 비밀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유엔이 발표했다. 「덴마크」가 20번 째로 비준되는 이날에는 고문을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한 고문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703-15

日字:1987.6. 8

所載： 2 版

〔遲晚〕이라는 날
말다툼 끝에 빼앗은 치를 차내는 날
도 드물다. 우리의 벌제사는 「지설수설」
만이 「제동을 차는 날」이었다. 그 행세
로 전해온다. 그전 자본이 있는
곳장아리서 신을 하던 법전은
어쩔 수 없이 자제를 놓아
놓는다. 곤장을 주고자니 법
의 엄정에서 보며, 그런 자
백의 지각이다. 법률은
장을 막고자 단위의 자제를
지만」이라고 엄격했던가
다. 한마디로 어구나 그려는
어거지의 표정이다. 그러나
그 왕조시대에도 곤장을 치
수는 절하지 않았다.庶民과
도둑을 제외하고는 그의 윤
행을 밟아야만 매질이 통인
되었다. 물론 그 매질도
언제 30대 이상을 표지하는
절도 무부와 같은 이로 한정된다.
다. 예전 고이자 생활을
여서는 아파다는 생각이 많았
었던 것 같다. 왕조의 시대는
풀나고 고리를 불렀기 되었으
나, 익히다 掖問致死의 비극
이 빚어지는 오늘과는 대조적
이라고 할까 ◆역시 「행세스

티의 정고처럼 고국의 불화에 「남제」를 부리는 건 속 단이단. 불레이. 편 고문은 삼하지 않으려 地化하고 密化한다. 지출화도 그 불법의 부설이다. 땅에 조사가 꾸며 둘을 가면 불교 법장에서 러어서 빙이 황금도기를 절기다린다. 로운 露風의 절 차에 진회당자가 나는 일이다. 그걸 더면 불교화로도 기약되지 않는 고문이 어떤 방으로 없었겠인가. 그것이 오를 이후가 갖는 고려의 하나다. 그 고교를 데려온 대중의 헌수가 범부를 차례이다. 고루한 이미 어려 국가 만의 물질적 수준을 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反人間의 도전인 것이다. 베루에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을 마련하고 「행복스티」의 활동은 국장을 베풀고 있다. 이들한 다시 「유엔」의 국제反韓阵营이 빌미였다는 소식이다. 물론 규약이나 협약만으로 고문이 뿐이었다고 믿는건 속단이다. 그러나 고문의 구조를 알아 마르도록 다 젊은 우리가 암나 된다. 그렇다. 그 단점과 표현으로 다른 국제구조와 협약에의 가능성을 주저할수는 없다.

日字： 1988. 1. 16

경찰의 고위간부들이 고문 치사사건의 유폐조작에 여부 된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일 선결찰은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가혹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이 있다 라 발생하는 등 결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 고 있다. 결찰에 대한 국민들 의 불신감은 결국 국방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문제마저 제기하게 되는 등 결찰의 민생 치안업무 수행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결찰과 관련한 각종 추수이 고리를 끊고 있는 가 운데 경찰이 지정한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자기력을 과감한 결단을 구 시

로이 높다.

15일 차장찰로 고문치사법 즐를 통해 사건 당시 파출소 인 응폐조작사건에 걸친 이 관계된 저처안본부장 姜致昌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결찰조직 내에서 는 물론 국민들에게 충격을 더해수 있다.

水原경찰서에서는 지난 13일 10대 용의자를 수사과정에 서 몸풀이로 마구 때리는 등 고통을 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 13일에는 元惡準양 유 피사건의 범인咸基植씨를 시 민제보로 블집었다가 강서소 홀로 놓친 달달경찰관들이 상 부에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 어 풀어주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사건이 들었다.

【水原任具彬 沈揆先기자】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署長직위해제 警官 2명 구속

【水原任具彬 沈揆先기자】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경찰拷問행위 여전하다

참고인에도 暴言 잣아 不信感 높아

潤浩警署을 진짜 위험화에 희 부했다.
한편 용의자에 대한 고문행 솔정은 이날짜로 평했다.

히 높아 서민들에게 위축감을 주는 등 인권유린과 강압적인 자세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위로 이미 구속된 이경수(水原 용의자) 고문행 솔정은 이날짜로 평했다.

拷問행위 여부 조사

水原용의자
고문사건

署長직위해제 警官 2명 구속

부기록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도 10대 소년들에게 당한 사 실을 「물가한정의 상황인 것」에는 직원 3명과 방법대원 1명을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줄여 살피에 보고한 사실이

東亞日報社調查部

1년간 12件 절도
朴鍾哲 고문지사 사건을
제기로 서울지방법원사회(재판부
장·주석)에 설치된 「법률법
연행 및 고문신고센터」에 지
난 1년동안 신고된 사건의

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자 등 가해행위 사실이 확인되자 전이 6건인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법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27일은 본인에게 가족들의 요청으로 고소 또는 고발장을 치를 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접수

재 2건은 조사중, 1건은 조사결과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 되지 않았으며 3건은 신고자에 의해 해명되지 않는 것이다.
고 밝혔다.
고문신고센터에서 수사기
행=△서울서대문경찰서大成
경장(57) 김경희(53)朴奉
차례 韓國드라마 가혹행위를

2件은 本人이 문제화 不願

우 행 우 6 件 회 안

6월12일 석발렸다.
△목사 승혜성씨는 지난해
2월22일 오후 6시경 서울鍾路구 蓬池洞 기독교회관에 들
어가셨다. 경비들이 이전 사설경
찰관들에게 구토실로 끌려

방화한양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위원회는 「교도관 구치소 의사 수갑자를 면밀한 절차와 품행을 가혹행위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拷問신고센터

가야한국 6 件

가했으나, 당시 통일 무렵이로
풀려났다.
여호사밧은 이를 3천명의 관
련제를 판들을 잡아포함하여
로 체포해 고발했다.
△서울에서 체포당한
성경학자

를 차이는데 접대비용을 해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계찰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韓國人の 부끄러움

그 곳이 바로 고문실이다.
그방에는 각종고문기구나 도구
가 엎드려놓여 있다. 사지
를 서서 허장아들리는 기구, 사람
을 넣어서 매달아 말려 죽였다는
쇠창살방구니, 혀를 뽑는 도구,
토끼굴, 그리고 글로 물기기에 적
전치 않은 각종구들이 읍산한 분
위기 속에서 이류의 창호성과 잔
인성을 천연스럽게 즐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고문의 현장을目睹할 때마다 한없이 느끼는 묘한 감
정이 있었다. 「열사사람도 별
바일 없는 未開港속이었구나!」
「先進이라고 뽐내는 너희들이 어
찌면 가장 진작한 민족이었는지
도 모른다」는 느낌이었다. 그것

韓國人의 부끄러움
英國의 관광명소는 대개 옛
城들이다. 대부분 王이나 제후
이 살았던 이 城에는 과거 영
국 귀족들의 생활모습이 고스란
히 남아있어 관광객들을 끌고
온 순진한 풍俗이 아니었다. 운
율이 오싹한 곳들도 아니고 그 곳
에 회생당한 옛사람들에 대한
그것은 共犯을 만난 것 같았
同類를 찾은 것 같은 암도감 같은
것이었다. 韓國의 人權문제가 거
론될 때마다 고문의 사례가 세



金大中

사람이 줄고 여자의性的의 수치심이 고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안도감)은 산성이 부서지고 만다. 경제적으로 규속히 성장해서 무역흑자으로 둘았고 유통권을 주최하는데까지 이른 나라에서 権力이 백성을 물속에 처박아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性의 희롱의 대상으로 삶은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쩌다가 일부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사

당 그것을 두둔해 해석하면 인
간이 통제적 폴리암에 얼마나 해
롭게 무너지고 마는가를 보여
줄으로써 그 인간 존경법을 가진
가없다는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서 행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文이라는 경찰관이 機械에게
했었다는 그 입에 달을 수 없는
性的 모욕은 文경장 자신에게는
상대방이 달하는 것을 즐기려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機械

에 西歐에서도 「司法의 고문」이라는 合法의 성격을 띤 점이 있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문은 그 司法의 성격이 榨力으로 強제, 위협되는 상태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拷問 —고통에 대한 공포

대기
벌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의
의식수준을
높여
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인한 人間 모멸

소홀이 끼었다. 놀라 이 펑돌 있다 고로면
았다. 고로운 理物을 지닌 존재는 것을 보기 위한 고문의 극치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했
다. 이성을 지닌 존재, 즉 인간만
이 상대방이 달랑거나 놀리는 것
을 맘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
문이다.
어떤 사회학자는 고고한 때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치밥는 심리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
그러나 고고의 사회심리적 요
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절정적
탄압관련적 요인이다. 절차사전
에 보면 고문은 즐거와 짜증을 얻어내기 위해 고행자에게 절정적
적 유체적 고문을 주는 행위로 정의된다. 고문은 범행에 대한 확장된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한다.

지 못한채 친구세례니 독재와 탄압으로도 입암하고 있다. 또 하나는 현대상으로는 고문의 친제를 광여행을에도 불구하고 고정부가 그녀의 안정을 걱정할 수사에 크게 의존한 밤에 입장을 전도로 치유한 상태에서 참수수련원의 전환을 넘을 때다. 우리의 수사기들이 고문이라느

새政府의 宣言기대

처적 고문은 노리이전의 문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고 문의 악습을 어떻게 면치버리는
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새롭게
들어서는 점수가 대체로 높아.
으로 고문집에선 어떤 것인가.
대해본다. 法이 있고 선언이 있다.
어서 고문이 근본되지 않았다고
반문한 사람도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 대체로 농담의 선언은
여기 기관에 대한 의견이 지나쳤다.

최악의
방법에 의존하는
상황은
어찌도
연습하고 있는 사실은 두
가지
책임을 물기보다 타고 있다.
나는 曰帝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
는 수단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정착시켰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
나는 남북 분단의 상황과 이데올
로기 대립의 과정에서 국가 안보적
당위성으로 용인되다 시피 했다는
판정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배
운 고문의 악습이 反共과정에서
정립되고 그것이 정치적 반대
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역할되
었다는 놀라다.

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는 대체
원의 확장 의지가 중요하다.
고문에 의한 자백, 자백이란 철학
태의 증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가 확정되기 시작
하면 下級법원은 고문에 의한 자
백을 외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상황에서 정치적 또는 혐사적
전의 고문은 설립을 막게 될 것이다.

지식이에 대한 고문의 대부분
은 단지 폐쇄형 대문에
빚어진 결과로써 대문에
없다. 열점도 없고 따라서
제재를

"새時代바람"

검찰은 30일 부천서 살고
문사건의 처리에 있어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공식발표 표면적으로
다들고는 달달한 모습을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았듯 첨사전체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싸여 있었다.
당분간 경찰의 이같은

견해 표명은 李種南(이종남)·
崔相疇(최상조)·
총장실 직원들은 이어다
해『일정이 같자기 번경집문
문』이라고 설령했으나 주제에
의해서는『대법원의 결정을 따
르겠다는 점들이 일정을 밟
히는 자리에 걸친 풍수가 짐
점 나서는게 겸침의 사기』를
는 말이 나온다. 법률 수뇌부가
의 착작한 실정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卷四

신뢰성에 흠간지만 잘된 일

”원칙대로
처벌안해
망신당했다”
간부들
굳은 표정

남해 5월 朴鍊근 사건의
로 절장, 충장이 전개 경찰
돼 끌이나 떨어진 검찰사
기가 이번 파문으로 더 떨어
지게 됐다』며『인천지검에
서 이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文경장을 원칙대로 처벌했다
면 오늘날 이같은 막사를 당
하지는 않았을 전』이라며
한줄을 내쉬기도 했다.

中立化선언싸고 自省의 소리

“위계질서 무시… 경찰独立 노력 逆作用” 우려도

출주수
제작제작장의 일
실선언]에 이어 절대다
업생 및 재학생들의 성령이
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정책
종립」 파문은 이것이 정착의
오랜 숙원이다. 과제였을에
비추어 그 면과가 쉽게 가라
않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
찰조직의 허리연합을 맡고 있
는 충북전간부들은 정찰과 정
치집중단위인 「민족화」 훌륭의
핵심이자 선결과 제일을 둘러
후배들이 「선언」 이 염이로
의 전방진영에 쇄신 작업에

이 있을 수 있다는 「전술적」 고려문이란 후문이다.

기억을 절절나부는 얹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절의 「돌립」과
「줄립」은 상호보완적인 개
념이기도 하지만 시각에 따라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

복음서
우리에게 있어 그는 이 사람인
예수께서 천국의 왕으로 주주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이해될수 있다.

인내부부의 삶에 속해 있는 이상 정직적 종립을 지켜나가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절망도 기구독립의 담론으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는 경찰의 대인권관이 한 전제는 선수하고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로소 의 특별한 예우를 보장하는 도적

그는『경상에 거정동 관령과
관계는 하나님의 속령』이라
서『경위주의적인 통치자
가 전방지으로 쇄신되지 않
한 제도의 개선을 궁금증을

의 계기로 밤을 더러 하며
국은 이를 위한 활활한
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이
를 립없다. 〈韓三熙〉

수사기관의 독자성이 확보된 가운데 수사가 이루어졌다가 보다는 「관계기관 대처회의」 등 바깥선에 의해 결렬이 났으리란 강한 회의가 깔려있기 때문일 뿐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사건이 터졌다 하면 수사 과정이 나 수사를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수사책의 일자와 「보처토의 直行」이 있을 후 사전처리 기일을 잡아가는 예가 없지 않아 있다.

부처 청고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의 「우리는 하는데까지 했으나 최종결정과정에서 꺾여버렸다」고 한 자조적인 푸념도 결국 이 사건의 최종처리 있다.

제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이 남는 사건의 목록에 올려져 있고 이들이 복수로 출동해 복수로 연주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본부 열린도연주의 불법대회 유통도변경통 각종 탈법 적거리에 대해서도 그렇다 할 험사차별 이 가해진 적이 없다.

설고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판이 사법부는 물론 양의로 출범 새질부의 「집을 넋어주었다는 평이 따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족화의 대로를 탄탄히 열어가는데는 「긴가민가」하는 식의 의혹을 낚이고 있는 지난간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金洙·서호부기자

도 이는
않은 채 물에 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상황은 결국 그 이듬해 3월 한일합성株주식회사의 고문사로 이어졌다. 치안본부의 어느 경리부 청을 자백하라고 티만 일당에 엎드리게 해놓고 바다가 죽게 한 사건이었다. 당시 야당공세에 물려 고문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고문의 대상으로서 고문처사상의重罰법률이

자도 없었을것이며, 일에 되뇌기 부끄러운 성고문도, 朴轉哲의 억울한 죽음을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官權은 아무리 고약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비로하여하고, 「내편」에 대한 충성설을 배운이니 오히려 감싸주어야겠다는 것이며, 이불 처벌하면 일선 수사관의 土氣위축으로 「내편」을 앓게되니 허령지 못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

같아 대한 물서리치는 차관 행위가 있는
설사리 자행되어 왔다. 中世紀高麗시
대란 바로 다른 편을 주제로 한 고문이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
다. 지금 이땅의 우리의 시대는 무
엇이라고 훌륭해야 타당한 것인
장

통이 사발구에 놀랄고 판문통에 지성
이렇게 불과 이 성고문사건을 들
러싼 문제의 근원은 경찰의 경우 상
위의 힘의 소신이라는 것이 되고 검
찰의 경우 그 무기력 때문에 솔직권행
사가 본의 아니게 좌절되었다는 것이
되며, 법원의 경우 그동안 사법
밖의 사정 때문에 법적 속성을 제대
로 떠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결국
너나 할 것 없이 그 모두가 정치권
력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유통
법률은 사법부에
몇 가지
의 일대 정치적 결단을 바라는 것
이다.

기정으로 편리한 존재가 되고 국민의 충의가 많진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에 대한 불자성은 바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둘째, 접찰은準司法기관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법전권하는 사법부도지 않게 그 절차적 종종성이 요구된다. 우리는 협사사건에 있어 접찰을 통해서만 국가형벌권이 행사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비록 접찰이 전부조직체계상 행정부에 속해 있다 하지만 그 직무

로 이용되어 온 건국이래의 뇌물이 이번에 깨끗이 씻어주어야 하겠다.
權양은 바로 대도의 주도자를 대리하여 성금을 담했다. 같은 날에 으로 박종근도 고문관에 죽었다.
경찰이 지정한 온 국민의 공들이 되도록 본회의 위치로 되돌려져야 한다. 그들을 절차적 이용기관으로 삼았을 때에 민주주의는 맘대로 치달게 될 것이다. 3·15부정선 거도 바로 그 표본이 아니었겠가.
盧泰愚재 대통령의 선거공약 속에서는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강한 민주실천 憲憲 속에 이를들이 크게 자리잡혀 있을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拷問 청산을 위한 세 가지 提案



東時論

樽音源本多忠重説定した。今、その大審院の決
定を、見えていた。 우리는 형사법정의 안
팎에서, 잔인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호소를 수없이 들어 왔지만 그 일
들이 거의 판례처럼 질
못해 왔다.
나와 당 앞에 말한 金時敷이나尹
노파선관 피의자 고문 사건이 법대로
처단되었을 爪木相이 사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풍
토가 그때 바로 잡아졌더라면 그 명

○ 전쟁을 되고 싶은 히틀러는 이들이
권력을 끌어 팽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절대화도 비열한
이해관계에만 얹혀 있어 통일의식에 무관
에 지금 우리는 암미국가·미국국가·
의 국민이란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다. 예전 「우리」사설들은 고문을 한
국王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장 신중하게
국왕이 의도한 대로의 자제를 받아
왕에게 알리는 일은 간교한 신하의

새로운 전투가 들어서게 될 바로 일전에 그 결정이 있었다. 25
이 대법원 결정은 고급군사법례사
건과 결합하여 경찰 중립성을 불러일
으키고 있으며, 검찰은 당초 이 사
건처리에서 외세에 밀려 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공소권행사를 포기
했다는 얘기가 풍靡한 사실같이 되
어 버렸다. 한편 법원은 제때에 의
연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래
거래하지 않던 저간의 사정에 대

우리는 구태여 지난 불을 말하고
싫지 않다. 오직 암울로 이 나라에
이려한 어루운 일들이 다시 저절로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하고 그 근본적 대책을 찾아내
야 한다.

새정부에 대한 미주 학생회의 기대
속에서 미주 통일의 원리를 들을 거.
나 그렇지도 않으면 사회정의가
파연 무언인가를 말하려 하지 않는
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삼아 출

겠다는 점 때문이야. 우리는 항상 법
판에게 압수과 증거를 호소해왔지
만 절박한 입장인 그들에게 간청한 폭
동학에서도 꼬집어 서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 바람이 같았다는 약동
이든 사벌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
없지 않아서 바로 정치권력의 정당한
자세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
는 일이다. 그것이야 말로 국민의 신
뢰속에 정부를 공고히하는 일도 되
고 민주주의를 꽂고우는 일이 되는

의 사법사무성이 절코 경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사법정의의 실현을 그 생명으로 하는 검찰권 행사는 예전처럼 청진인 절차적 벼랑에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검찰권 행사에 正義가 사라지고 그것이 단순한 사무처리로 전락될 때 사회는 부정이 정의가 되는 가치관의 틀 속에 빠지게 되어 부도덕 무질서 사회물질주의의 투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東亞日報社

73

類號：703

日字 1988. 4. 4

所載 2 版

李在燮은 고소장에서申す。李
전통정부장을 훈장 75년에 자신을 진급 조치 위
반월이로 불법연행 하위자 백
을 밟기 위해 전기 고문 를고
물을 들을 가했으며 金燦燦 전
대통령과 李鶴揚 전야기부 차
장은 지난 80년 할증 수사 부로
장과 합수부 대공자 절을 밟고
있을 당시 자신은 金大中석
법을 와는 아무런 관계가
내 탐보 사건에 관계됐다
허위자로 모사 밟기 위해
고문을 불법으로
가했다고

불교
수전대통령이 고소
미주발전연구소대표
李信範씨
미주발전정책연구소대표
信範씨(서울대법대 4년복학)
는 4일 숙자 숙자 숙자
李鶴摶 전안기부차장 申錫秀
李信洛 전농업부장관이 자신
으로부터 「전부전복과 金大
中씨 내란을 모사전에 관련돼
있다」는 허위자백을 밟아내
기위해 부활률을 시켜 불법
연행해 전기고문등을 가했다
고 주장, 이를 풀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分類：
番號：763

日字： 1988.4. 8

제5장 국정운영의 원칙과 자행
되는 구조화되지 않은 구조를 위한
국제고통방지 협약에 정식이
기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인 실무자연에 들어갔다.
법률부는 8월 차관회를 열고
문체사전을 비롯해서 북전
서생고문사전, 金種鑄成 등 정
치범고문행위 등으로
서론 정지 사항을 뒤집어
었을뿐 아니라 국제적인 노도
국가적인 미지를 실추시킬 고
문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아한다. 처벌법률을 명시해

국제 고문방지協約 가입검토

1988.7.8

所載： 2 頁

50 or

明魯烈公 고문致死